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

(목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금등잔대들 사이를 거니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성경: 계 1:10-2:1

I.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음 항목들을 주의해야 한다.

- A. 우리는 반드시 노예의 위치를 취해야 한다 — 계 1:1.
1.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롬 1:1)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자칭 사도나 주님께 고용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오히려 그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가 아니라 거듭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 오신 노예였다.
 2. 우리는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 종으로서, 심지어 노예로서 다른 이들을 기꺼이 섬기고자 해야 한다 — 마 20:24-28, 25:14, 고후 4:5, 갈 6:17, 출 21:1-6, 사 50:4-5.
 3. 그리스도는 과거에 우리를 섬기셨고(막 10:45), 현재도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시며(눅 22:26-27), 미래에도 우리를 섬기실 것이다(눅 12:37, 계 7:17).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B.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움직임에 보고 깨달으며 이 움직임에 반응하는 기관인 우리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오직 사람의 영만이 그 영에게 반응할 수 있다 — 계 1:10, 4:5, 5:6, 시 119:17-18.
- C. 우리는 반드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한다.
1. 보는 것은 듣는 것에 달려 있다. 요한은 먼저 음성을 들었고(계 1:10), 그런 다음 이상을 보았다(11-12절). 우리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볼 수 없다(사 6:9-10).
 2. 우리가 주님의 경륜과 일치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욥 33:14-16, 사 50:4-5, 출 21:6).
 3. 둔한 귀는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 렘 6:10, 행 7:51.
 4. 죄인들의 귀는 구속하는 피로 정결하게 되고 그 영으로 기름 발라져야 한다 — 레 14:14, 17, 28.
 5.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구속하는 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 출 29:20, 레 8:23-24.

II.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계시이다 — 계 1:1상.

- A.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위했기 때문에 맞모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러한 환경 아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계시들을 주셨다 — 계 1:9.
- B. 요한의 눈앞에서 이 땅은 작아졌지만 하늘은 그에게 열렸다. 이것은 감옥에 있던 요셉, 광야에 있던 모세, 고통 중에 있던 다윗, 사슬에 묶인 바울을 떠오르게 한다. 그들은 모두 신선한 계시들을 받았다.

C.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요한도 가고 있었다. 요한은 이전에 한 번도 받지 못한 이상들을 받았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밭모 섬들’을 오해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Ⅲ.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면서’(계 1:13),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며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셨다.

A. 사람의 아들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표시이다.

1. 그리스도는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신성한 일을 위해 강화되시어(출 28:4, 단 10:5) 교회들을 산출하셨고, 지금은 가슴에 띠를 띠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산출하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교회들을 보양하기 위해 금과 같은 이 힘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함께 유발되고 발휘되는 것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심으로 보살피고 계신다 — 계 1:13상.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고 정돈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출 30:7, 27:20-21, 비교 시 42:5, 11.
 -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림으로 생명의 보양하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엡 5:29, 비교 딤후 4:6, 엡 4:11.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다듬으심으로, 우리가 빛 비추는 것을 좌절시키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잘라 내신다 — 출 25:38.
 -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려야 하는 것들을 상징한다.
 - b.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점(잘못된 행위와 결점과 실패와 결함들)을 잘라 내심으로,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교회들을 똑같이 되게 하신다 — 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C. 그리스도는 가슴에 띠는 금띠로 상징된 것처럼,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신다 — 계 1:13하.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
2. 거닐고 계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손질하시고 신선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으로 채우신다 — 계 2:1, 7.
3.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봄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Ⅳ. 주님의 하늘에 속한 장구(長久)함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같이 희다는 것으로 묘사된다 — 계 1:14, 단 7:9, 욥 15:10, 비교 아 5:11.

- A.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요 20:28-29).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포함하신다 (미 5:2, 사 57:15).
 - B. 흰 머리털은 경험과 영광과 영속성뿐 아니라 거룩함을 상징한다 — 잠 16:31, 20:29.
 - C. 이사야는 양털같이 되고 눈같이 희어질 정도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한다(사 1:18).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는지, 또한 우리가 주님의 머리와 머리털처럼 희어졌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은혜에 대해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 V. 주님의 일곱 눈은 불꽃과 같으며,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고, 빛 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 계 1:14, 5:6, 단 10:6.
- A. 칠(7)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완성을 위한 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을 위한 것이다.
 - B.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주로 그분의 심판을 위한 것이다 — 단 7:9-10, 계 2:18, 19:11-12.
 - C. “난 매일 심판대 앞의 밝은 빛 바라봐/ 내 모든 생활과 일들 불 통과하기 위해” —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위치만 니 전기, 126쪽(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68장, 5절).
- VI. 주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은데, 이것은 그분께서 온전하고 밝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신성한 심판을 집행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상징한다 — 계 1:15, 겔 1:7, 단 10:6, 비교 출 30:18, 38:8, 민 21:8-9.
- VII.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계 1:15, 비교 14:2), 이 소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 곧 엄숙하고 장엄한(비교 계 10:3),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겔 1:24, 43:2).
- VIII.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빛나는 전달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 계 1:16상, 20.
- A. 전달자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들, 곧 예수님의 증거를 책임지는 이들이다.
 - B. 별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니고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는 전달자들은 주님께에서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들이다 — 계 2:1상.
 - C. 전달자들의 소망과 기쁨은 하늘에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나누며 또한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오른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 비교 시 16:1-3, 73:25-26.
 - D.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들을 관심하며, 그분을 위해 기쁘게 책임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 고전 15:58, 16:10, 비교 창 15:1, 빌 2:19-21.
- IX.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그분의 말씀이다 — 계 1:16하, 히 4:12, 엡 6:17.
- X. 그리스도의 얼굴은 힘차게 비치는 해와 같은데(단 10:6), 이것은 심판을 위해 빛을 비춤으로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 계 1:16하, 마 17:2, 비교 말 4:2, 사 5:31, 마 13:43.

XI.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결코 그분의 일을 미완성 상태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며, 또한 살아 계신 분으로서 그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을 살아 있고 신선하며 강하게 하신다 — 계 1:17-18상.

- A. 주님을 영원무궁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앎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보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는 것은 없다 — 딤후 4:22, 비교 창 39:23.
- B.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계 1:18상)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불렀고, 다니엘이 섬겼으며, 조지 밀러가 신뢰했고, 위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가 알았던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곧 우리가 속했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XII.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 계 1:18하.

- A.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가두는 곳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 버리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 — 딤후 1:10, 행 2:24.
- B.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기를 훈련함으로, 주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행동하실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길을 드리기만 한다면,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 마 16:18, 21-26.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사람들을 보양하는 법을 배움

활력 그룹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기 위해 사람들을 보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양함이 없이 소중히 보살피는 것은 헛된 것이다. 한 어머니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기를 원할 때, 그녀는 먼저 그 아이를 소중히 보살피서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를 보양하는 것이 없다면, 그녀가 소중히 보살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이를 소중히 보살핀 후에 어머니는 음식으로 그를 보양한다. 이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보양하시는 방법이다. 그분은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신 후에 먹이신다.

요한계시록 1장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들을 돌보시는지를 보여 준다. 요한계시록은 표징의 책이다. 표징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상징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 번째 상징은 대제사장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여 주며, 마지막 표징은 새 예루살렘이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등잔대들인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계 1:12-13). 한 면으로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계신다. 다른 한 면으로 그분은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고 계신다. 활력 그룹의 구성원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할 때나, 사람들을 우리의 집에 초대하거나 집회 전과 집회 후에 그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하도록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한다.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하는 것의 의미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는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 즐거운 얼굴을 해야 한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 즐겁지 않은 얼굴로는 어떤 사람도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보살피며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런 다음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그들을 보양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결혼이나 구혼이나 정치나 세계정세나 교육에 관해서 말할 때는 사람들을 보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보양하는 것은 세 단계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쇠고기를 먹이기를 원한다면, 그는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도록 쇠고기를 요리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요리’해야 한다. 같은 것을 요리하는 데에도 많은 방식이 있다. 나는 삼십삼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나라에서 약 삼천 메시지로 그리스도를 요리해 왔다.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보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쫓아 가는지를 묘사한다. 그는 우리에게 불평과 따지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하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매들은 불평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형제들은 따지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만일 당신에게 불평과 따지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운행하시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빌 2:12-14).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매일 우리 자신의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부활 안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생명에 의해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하는 것은 모두 옛 창조물에 속한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생명에 의해서 해야 한다. 신성한 무언가가 사람의 존재 안에서 운행할 때, 이 사람은 아주 비밀하게 된다. 젊었을 때 나는 큰 회사에서 칠 년 반 이상 일했다. 갑자기 나는 전시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생계를 꾸려 갈지 몰랐다. 내 대답은 주 예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었다. 내 동료,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나는 비밀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왜 내가 직장을 포기하고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비밀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생명에 의해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어야 한다. ‘부활 안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타고난 어떤 것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에 속한 어떤 것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생명은 부활 안에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타고난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이며, 이 신성한 생명은 우리를 비밀하게 한다. 당신을 접촉하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무슨 학위를 받았는지 물을 것이다. 당신은 하버드에서 생화학 학위를 받았다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 사람은 뛰어난 성적으로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다. 온 세상은 그를 필요로 한다. 그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당신을 비밀한 사람이 되게 한다. 당신은 높은 교육을 받았으나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며, 아주 비밀한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부활 안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부활 안에 있는 일만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부활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일을 한다면, 생명 주시는 영은 결코 그것을 존중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수고는 결과 없이 공허한 것이 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의 대부분의 일은 부활 안에 있지 않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안에서 신성하고 비밀한 생명의 의혜서가 아니라, 타고난 생명 안에서 일한다. 타고난 것은 모두 옛 창조물에 속한다. 우리가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옛 창조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만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할 수 있다.

교회들을 돌보시기 위해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하시는 그리스도의 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하는 최고의 분이시다. 12절과 13절에서 요한은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등잔대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신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등잔대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옷은 제사장의 겂옷이며(출 28:33-35),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여 준다.

그분은 또한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 띠는 긴 금띠이다. 띠와 금은 분리된 두 개의 것이 아니다. 띠가 금이다. 금띠는 하나의 금이 띠가 된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며,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한다. 이 금띠는 그분의 가슴 위에 있으며 가슴은 사랑을 상징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위해 허리에 띠를 띠었다(출 28:4).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정련된 금으로 된 띠를 허리에 두르셨다. 허리에 두르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분의 신성한 일을 끝내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산출된 교회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이것이 그분께서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이유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수고로 건축하신 그분의 교회들을 돌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분의 허리가 아닌, 사랑을 상징하는 그분의 가슴에 있는 띠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 나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에너지가 됨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에너지는 모두 그분의 신성이다. 하나의 금이 이제는 띠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총체는 띠가 되었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을 상징하고, 가슴은 금과 같은 이 힘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발되고 발휘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분의 신성한 에너지는 교회들을 보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과 함께 발휘된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심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시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등잔대인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계 1:13상).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자신께서 건축하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먼저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시면서 교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신다.

등잔들을 정돈하심으로

그분은 등잔대의 등잔들을 정돈하심으로 교회들을 돌보신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등잔대의 등잔들을 정돈했다(출 30:7). 등잔들을 정돈하는 것은 등잔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심지를 잘라 내심으로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의 심지를 잘라 내심으로 등잔대를 돌보신다. 이것은 구약의 예표에 따

라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같다(출 25:38). 심지가 탈 때, 그것은 검게 된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심지의 검은 부분을 자르기 위해 와야 한다. 이것은 심지를 잘라서 등잔을 더 밝게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의 탄 부분, 곧 잘라 낸 부분은 우리의 욕체, 타고난 사람, 자아, 옛 창조물과 같이 잘릴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상징한다. 모든 등잔대는 유기적이다. 그것은 살아 있는 등잔대이다. 각 교회는 살아 있는 등잔대이기 때문에, 각 교회는 많은 느낌이 있다. 검게 된 심지가 있는 교회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약 팔 년 전에 애너하임에 있는 교회에 기쁨과 즐거움의 느낌이 없었다. 이것은 검게 타서 숯같이 된 심지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검게 탄 모든 심지를 자르시고 손질하심으로 애너하임에 있는 교회, 곧 등잔대의 등잔을 정돈하셨다. 이것은 애너하임 교회를 소중히 보살핀 것, 곧 애너하임 교회를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었다. 팔 년 전에 애너하임에 있었던 교회의 상태와 오늘날 애너하임에 있는 교회의 상태는 비교될 수 없다. 팔 년 전에는 빛이 없이 검게 탄 심지로 가득했다. 성도들은 즐겁지 못하고, 유쾌하지 못하며,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 다음 우리는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등잔을 정돈하시기 위해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인성을 지니신 대제사장이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은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한다(15절).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유혹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쉽게 우리의 약한 감정을 만지실 수 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항상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항상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되듯이, 그분의 신성 안에서 신성한 사람으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신다(계 1:13하). 그리스도는 인간적이실 뿐만 아니라 신성하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한 에너지인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띠를 두른 사람의 아들이시다. 신성한 에너지인 그분의 신성이 많은 방면에서 교회들을 보양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리스도께서 등잔대를 돌보시는 것을 계시한다. 한 면에서 그분은 교회의 등잔의 심지를 손질하시며, 일곱 서신서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언급하신 모든 잘못 행함과 부족과 실패와 흠을 제거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최상의 제거하는 일을 하심으로써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신다. 다른 면으로 이 일곱 서신서들 각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양하심을 본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어진 첫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계 2:7)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것이 왕국 시대를 언급하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왕국 시대에서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왕국 시대 안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오늘날 애너하임 교회는 나에게 낙원이다. 이 낙원에서 나는 매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먹는다. 만일 내가 오늘날 여기서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면, 왕국 시대 안에서 그분을 먹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어진 두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계 2:10).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한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박해를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승리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왕국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에서 비롯된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누림을 갖지 않는다면, 오는 시대에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서신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어졌다. 버가모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였다. 주님은 버가모에 있는 이기는 이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도록 주실 것이다(계 2:17). 구약에서 만나의 일부는 껌 안에 감추어진 금항아리 안에 보존되었다(출 16:32-34, 히 9:4).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금의 본성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는 시대에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흰 돌과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되도록 변화된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기는 이들에게 그들이 왕으로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곧 통치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계 2:26). 먼저, 우리는 오늘날 왕으로서 다스릴 필요가 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따르면, 우리는 오늘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는 시대에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다섯 번째 서신에서 주님은 사데 교회에게 그들이 죽었고, 죽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기는 이들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계 3:5). 흰옷은 죽음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행위와 생활을 상징한다. 이 시대에서 이기는 이들이 행하는 방식은 오는 시대에 그들의 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살아 있어야 한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다(계 3:11).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들은 이기는 이들이 되어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이다(계 3:12). 일곱 번째 서신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하라에서 구원받도록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권면하신다(계 3:18). 그분은 그분께 문을 여는 사람이 함께 정찬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계 3:20).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 또한 그분의 사랑과 더불어 행해진 그리스도의 보양하심임을 볼 수 있다.

그분의 세 단계 안에서 사랑에 의해 수행되는 그분의 신성하고 비밀한 사역과 더불어

그분은 또한 '에너지 벨트'와 같은 그분의 신성을 가지신 대제사장으로,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

교회들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도록

그분께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시는 것은 교회들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일곱 배로 강화되심 안에서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쉽게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모든 방면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신다. 또한 그분은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일곱 서신 안에서 계시된 그분의 인격의 모든 긍정적인 방면으로 그분의 신성 안에서 우리를 보양하고 계신다. 그분은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돌보고 계신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우리를 소중히 보살피심으로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시어,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 안에서 우리를 보양하시어,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됨으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 *(활력 그룹, 129-139쪽)*